보다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엠바고
[인터넷 7.17.(수) 12:00 이후,
지면 7.18.(목) 조간]

배 포	2019.7.17.(수)
담 당 과	식약처 유해물질기준과 농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농진청 농자재산업과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과 장 /사무관 (연구관)	이동호/김진숙(☎043-719-3851/3854) 이동식/김지현(☎044-201-2971/2972) 김봉섭/이경원(☎063-238-0821/0824) 조영희/남해인(☎042-481-1848/4208)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 시행 이후 상반기 농산물 부적합 감소

농약 안전사용 인식 개선…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연착륙 기반 조성

□ 정부는 올해 상반기 모든 농산물에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를 전면 시행한 결과,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로서(참고1,2),

-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견과종실류 등에 우선 도입해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해 왔습니다.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도입 계획 발표(2011.10.) →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 우선 도입(고시 2015.10, 시행 2016.12.)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 확대(고시 2018.2, 시행 2019.1.)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으로 농산물 부적합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2019년 상반기 국내 농산물 부적합률**은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하였고, **수입 농산물 부적합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참고3).

○ 상반기 **국내 생산·유통된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2%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에 비해 **0.3%p 감소**했습니다.

* 농산물 부적합 건수/조사 건수(비율) : (2018.상)514건/35,515건(1.5%) → (2019.상) 420건/36,180건(1.2%)

- 이는 잔류농약 관리가 강화되면서 현장에서 **등록된 농약을 안전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려는 등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확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 반면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안전관리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3%p 증가**(0.7%→1.0%)하였고, 바질 등 허브류에 부적합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 참고로 5월 말까지 **농약 생산량과 출하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8%와 12% 감소***했습니다.

* 농약 생산량/출하량 : (2018.5월) 10,635톤/13,099톤 → (2019.5월) 8,758톤/11,486톤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으로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려는 농가의 노력이 농약 출하량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됩니다.

□ 한편, 정부는 **하반기 안정적인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운영**을 위해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 설명회 등**을 추진(참고4)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농약의 추가등록** 및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고 **동시분석 검사항목**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부적합 우려 품목을 중심으로 **교육·상담을 강화**하고,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상담창구*와 농업인 단체**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 (민원상담전화) 농촌진흥청 1544-8572, 도농업기술원 및 특별시·광역시 1544-8261, (현장상담센터) 시군농업기술센터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 13개 시·도 대회 행사장 내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상담부스 설치(7.18.~10.8.)

- 농업인 단체는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농약 판매상들**은 농약 판매 시 적용 농산물 **안내**와 고객별 **처방 농약 정보 관리**를 하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참고5).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교육·홍보물 제작·보급, 폐농약병 등 영농 폐기물 수거 등 추진

○ 또한 **국내·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 **수입 농산물**에 필요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업체별 무료 상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추가등록 수요가 많은 **소면적 작물용, 제초제** 등 농약을 **상반기 1천여 개 등록**에 추가하였고 **내년 초까지 4천여** 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 농약 등록(누계) : (2017) 16,349개 → (2018) 23,367개 → (2019.상) 24,433개

○ 참고로 하반기부터는 **농약 동시분석 검사 가능항목을 370종에서 473종으로 확대**하고, 모든 농약의 판매정보 기록과 보존을 의무화하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를 시행**(2019.7.1.)하고 있습니다.

  * 농약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 농약 품목명(상표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 의무 기록 및 3년 간 보존(50㎖ 이하 소포장 제외)

□ 정부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계속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1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관련 개념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국내외 농산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하고, **없을 경우 일률적인 0.01ppm** 적용(2019.1.1 전면 시행)

  * 일본(2006), EU(2008), 대만(2008) 등 주요 수입국에서 기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2016.12.31부터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이미 적용 중

잔류허용기준 여부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전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후
기준 설정 농약	설정된 잔류허용기준(MRL) 적용	좌동
기준 미설정 농약	① CODEX 기준 적용 ② 유사 농산물 최저기준 적용 ③ 해당 농약 최저기준 적용	**일률기준(0.01ppm) 적용** * 기준이 없음에도 ①②③ 순차 허용으로 발생하는 농약 오남용 개선

□ **(농약관리)** 농업인들의 농약 안전 사용을 위한 **'안전사용기준(PHI)'**과 소비자의 안심 섭취 기준을 제시하는 **'잔류허용기준(MRL)'**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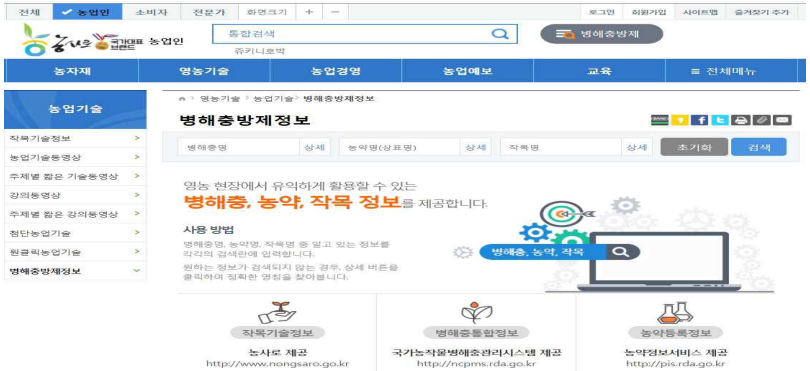
구분	안전사용기준 (PHI, Pre-Harvest Interval)	잔류허용기준 (MRL, Maximum Residue Limits)
개념	농업인들이 농약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	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 없는 수준의 허용량
근거	농약관리법(농식품부, 농진청)	식품위생법(식약처)
구성	농약제품 × 농작물 × 병해충	농약성분 × 농작물
예시	비펜트린 유제 : 감귤에 자나방류 발생시 수확14일 전까지 1천배 희석하여 3회 이내 살포	비펜트린(Bifenthrin) (단위 : ppm) : 가지 0.3, 감귤 0.5, 감자 0.05, 갓 1.0, 배추 0.7, 오이 0.5 등

참고2 농약 잔류허용기준 및 등록 농약 검색 방법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농사로(www.nongsaro.go.kr)



□ 농약정보서비스(pis.rda.go.kr)



참고3 2019년 상반기 농산물 잔류농약 조사 결과

□ **(국내)** 2019년 상반기 농산물 **부적합 건수**(2018.상: 514건 → 2019.상: 420)와 **부적합 비율**(1.5%→1.2)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

○ **(생산단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부적합 건수**(2018.상: 220건 → 2019.상: 196)와 **부적합 비율**(2.5%→2.2) 모두 **감소**

○ **(유통단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부적합 건수**(2018.상: 294건 → 2019.상: 224)와 **부적합 비율**(1.1%→0.8) 모두 **감소**

□ **(수입)** 2019년 상반기 수입 농산물 **부적합 건수**(2018.상: 50건 → 2019.상: 61)와 **비율**(0.7%→1.0)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

< 2019년 상반기 농산물 부적합 동향 >

(단위 : 건, %)

구분	2018년 상반기			2019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조사	부적합		조사	부적합		부적합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생산단계 (농관원)	8,698	220	2.5	**9,019**	**196**	**2.2**	↓24	↓0.3%p
유통단계 (시·도, 농관원)	26,817	294	1.1	**27,161**	**224**	**0.8**	↓70	↓0.3%p
수입단계 (지방 식약청)	7,052	50	0.7	**6,049**	**61**	**1.0**	↑11	↑0.3%p
합계	42,567	564	1.3	**42,229**	**481**	**1.1**	**↓83**	**↓0.2%p**

참고4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교육 · 지도 추진 실적

교육사업명	추진계획	주 관	추진결과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 제도 전문가 양성과정 개설	농업 현장지도 공무원(시·도, 농관원) 대상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전문가로 양성하여 농민들에 대한 효율적 교육·지도 실시	식약처	완료 (2019.2~4월)
경로당 순회교육	고령·영세농 대상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인지도 확대(2018.11.~2019.3.) * 전국 1,406개 읍·면에 소재한 41,962개 경로당 순회교육	농관원, 농진청, 농협, aT, 농어촌공사 등	완료 (2019.3월) 약 43천 농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농진청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추진(2018.12.~2019.3.) * 전국 250천 농가 대상 목표	농진청, 지자체	완료 (2019.3월) 약 273천 농가
품목별 작목반 교육	"품목별 올바른 농약사용 안내서" 보급, 작물별 사용 가능한 등록농약 안내(2019.2.~5.) * 전국 250천 농가 대상 목표 * 안내서 77천부 제작·배포	농협경제지주	완료 (2019.4월) 약 267천 농가
프로사이미돈 다검출지역 작목반 특별교육	프로사이미돈이 주로 사용되는 10개 시·군 및 11개 품목 작목반 대상 특별교육 추진(4.24.~30.) 가능한 등록농약 안내(2019.2.~5.) * 194개 작목반장 및 농업인	농관원, 지자체	완료 (2019.4월) 715명
과거 부적합 농가 농약사용 상담	과거 부적합 주요 품목, 등록제한 농약사용 농가 대상 등록농약 안내 및 미등록농약 반품·교환 안내(2019.3.~6.) * 전국 47천 농가 대상 목표	농관원, 지자체	완료 (2019.6월) 약 47천 농가
프로사이미돈 무료교환 이벤트	농가 보유한 프로사이미돈 포함 농약제품을 대체농약으로 교환 행사 추진(5.15.~6.15.)	작물보호협회, 농약제조회사 등	완료 (2019.6월) 1,505개 교환
부처 합동 농업현장 및 검사현장 점검	농업현장 및 검사현장을 방문하여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 및 애로사항 청취 * 제주·용인·성주·대구·부산·금산·청주 채소류 재배단지 및 보건환경연구원	식약처, 농진청	지속추진

참고5 농업 현장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선도 사례

◈ 충남 홍성의 강OO 농업인은 지역 영농회장으로서 수시로 고령 농가와 노인회관을 방문하여 등록농약 사용 안내와 잘못된 농약 사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 전파, 로컬푸드 회원(100여명) 대상 홍보를 통해 지역의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인식 확산을 선도

◈ 경북 성주의 한 참외 작목반은 정기모임(월 1회)을 갖고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관련 언론 보도내용과 정보를 분석·공유, 대표·총무 등이 수시로 군청·농업기술센터와 상호 교류하며 행정기관에 현장의견을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

◈ 전북에서 상추를 재배하는 이OO 농업인은 오랜 농사 노하우를 공유하는 네OO 밴드 「이것이 농사다」(회원 883명)를 통해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교육 영상과 홍보자료, 농약 비산 예방과 효과적인 방제 방법 등 정보를 공유

◈ 경기도는 도내 농업인 100명이 '먹거리 안전관리사'로 지정되어 영세·고령농 등 취약농가 6천호에 올바른 농약사용 방법 안내, 잔류농약검사를 위한 농산물 시료수거와 검사의뢰 등을 하며 농가 의식 제고에 기여(농농케어)

◈ 경북 성주군은 지난 2월 마을이장 233명을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실천 선도 지도자로 위촉하여 마을 주민과 농업인들을 계도하고, 등록되지 않은 농약 수거·보상 실시(1차 5~6월, 262개)

◈ 충남 부여 OO농협은 도 농업기술원, 방울토마토공선출하회 등과 '굿뜨래부여OO토마토 병해충 공동 방제단'을 구성하여 농업기술원 및 농협 전문가가 120여 농가를 방문, 정확한 병해충 진단·처방과 적기 방제를 통해 농약 사용량 감소 성과

◈ 경북 청송의 OO농약사는 전산 프로그램으로 고객별로 농사 규모와 처방 농약 정보를 관리하고, 돌발 병해충이 발생하거나 농약 처방이 필요한 시기에 농업인에게 문자서비스로 농약 처방 정보를 안내

◈ 경기 안성의 OO농협 영농자재센터는 고령농을 위해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 중 센터에서 판매하는 상품만 정리하여 벽면에 부착